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 등 총 11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윤산 생태숲조성 사업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조은영 의원의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는 주제와 하은미 의원의 ‘공공체육시설의우레탄 트랙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윤산 생태숲조성 사업장 현장방문

## **7월 의원정례간담회 열려**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7월 4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청 30주년 기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설명과 평생교육과장의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추진계획을 듣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자재안건으로 금정구의회 자원봉사활동 행사와 의원·직원 워크숍 개최 등 향후 주요 의사일정 및 주요행사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어르신 삼계탕 나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7월 12일 동별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최하는 복날 어르신 삼계탕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전의원들은 팔을 걷어부치고 어르신들의 식판을 나르고 부모님께 식사를 드리듯 공손히 음식을 배식하였다. 식사가 끝난 빈그릇을 치우는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작은 봉사를 실천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 **의원 발의 조례 사항**

### **①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박인영 의원외 5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박인영 의원외 6명
- 발의이유 및 주요내용

금정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체험과 나눔이 있는 공유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여가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준영 의원

**제목 :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

반갑습니다. 서동금사동 조준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자!” 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보행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으로 대표되는 금정구의 7만5천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회에서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낡고 부족한 안전시설을 다소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이전 및 폐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행정의 근거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중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를 규정한 제8조1항에 따라, 초등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노상주차장만을 우선 폐지하고, 2016년 상반기에 사고 발생 우려지역 추가 폐지 또는 안전조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금정구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3개소를 포함해 총 52개소를 지정 운영 중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인접한 노상주차장은 동상초 19면, 청룡초 14면, 금양초 44면으로 총 77면인데 그대로 남아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2항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9월 제정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을 포함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만, 조례 제정 2년이 지나도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소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 왜 아직도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면 발생하는 민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전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절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법과 조례에서 원칙과 의무를 정해 놓은 만큼 노상주차장 이전을 포함한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금정구의 장애인은 교통약자의 14.3%인 10,759명입니다. 금정구 관내에는 금정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시설이 10여개에 달하지만 아직 장애인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금정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예로 들면,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포함해 이용인원이 상당할 것인데도, 장애인복지관 앞 급경사 도로에는 사람과 차가 얹히는 상황에서 보도는 뚝 끊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차례 집행부서에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도확보를 요구했으나, 3년째 보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안전을 위한 보도, 개설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머지 장애인시설과 부곡1동을 중심으로 1,700여명이 거주하는 장애인임대주택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는 16곳의 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래노인요양원과 인근 노인시설 3곳과 남광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식물원으로 노인시설은 서로 인접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은 실제로는 2곳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아한 것은 금정구 청룡동 노인복지관과 금사동 금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숫자가 막대한데 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권 및 안전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을 즈음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국단위 협의회와 벤치마킹을 위해 타시도와 외국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선결조건은 아동의 생존권을 포함한 안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친화환경은 확보돼야 합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걷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여는 등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참고해서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과 조례에 규정된 계획을 성실히 수립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7.7.19.)



하은미 의원

### 제목 :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트랙 안전한가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하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중인 금정구 관내 공공체육시설 일부 시설물의 교체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이후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적법한 기준없이 시공된 우레탄트랙의 유해성분 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금속의 법정 기준이 만들어진 2012년 12월 이전에 시공된 금정구내 우레탄트랙 10 개소 중 7 개소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었고, 기준치인 90 mg/kg 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23배가 넘는 곳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대상지는 6곳으로 온천천 농구장은 교체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위해점수 25점 이상, 순차교체로 분류된 6곳과는 달리 온천천 농구장의 경우 위해점수 20점, 사용가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교체대상 분류에 대한 사항은 2017년 3월 교육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에서 제시한 ‘우레탄트랙 위해성관리 기본 가이드라인’의 교체우선순위 선정방법을 따라 정해집니다.

성분별로 위해농도별 점수를 정해 놓은 위해점수와 파손유무, 내구년수, 기준초과 항목수, 사용자 수에 따라 위해점수를 정해둔 시설관리점수, 이 두가지를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사용, 순차교체, 즉시교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우선순위 표를 보면 2017년 3월 발간된 ‘우레탄 트랙 납 오염 현황과 위해성 평가에 관한 제언’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온천천인

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인 관계로 1순위로 배정을 한 것이고, 그 외의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위해점수 순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예시에서 제시한 납 농도에 따른 위해점수 배점을 보면 전체 범위에 대한 배점을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5점단위로 그 구간이 정해져있을 것이 추정되는 바, 3순위에서 6순위까지 동일하게 25점으로 점수가 매겨진 것을 보면 순위선정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표는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로 들어둔 표이며, 오른쪽은 온천천농구장의 내용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규모를 4명미만으로 작성을 할 경우에는 20점으로 사용가능 시설이 되겠지만, 온천천 농구장의 사용자가 그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처럼 순차교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레탄 시설에서 우레탄을 만지고, 만진 손을 입에 대거나 할 경우 가장 위해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손으로 만졌을 때에는 유해성분이 손에서 검출되지만 손을 물로만 씻어도 검출이 되지 않아 손씻기가 유해성분의 체내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온천천 농구장이 순차교체로 변경되어 예산 반영 등의 이유로 교체가 지연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가능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우레탄트랙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주변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유해성분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우레탄 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내용을 지도해야하며, 도시공원, 공공체육시설이나 하천변 시설의 경우에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산책 나온 보호자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